

[사회]

폭염특보 속 피서인과 북적

완도 명사십리 주말·휴일 6만명 계곡·유원지·해수욕장 등 몰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29일, 고흥이 36.5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11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은 수십만 명의 피서객들로 크게 북적었다.

완도 명사십리를 비롯, 함평 돌머리·영광 가마미·보성 울포 등 유명 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특히 전국 5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꼽히는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피서 인파로 북적었다. 십릿길(길이 3.8km, 폭 150m)로 펼쳐진 끝없는 해안가는 빨간색·노란색·파란색으로 이뤄진 300여 개의 파라솔이 가득 매웠다.

명사십리는 28~29일 이틀 새 6만 명이 찾아오는 등 지난 6월 13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피서

객이 다녀갔고, 군에서 산값에 제공 하는 '사랑의 텐트'(몽골식 텐트) 70동도 다음 주말인 5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주부 강정민(여·43·인천시 부평구)씨는 "바다가 예뻐달빛이라 속이 환히 들어다보일 정도로 깨끗해서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서 "6시간 넘게 달려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2005년 말 '신지대교'가 개통돼 지난해 연간 120여만 명의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다녀갔다"며 "올해도 피서객들을 위해 30여 개의 파라솔이 가득 매웠다."

완도군은 오는 8월3일 오후 8시부터 더위 시간 동안 유명 가수와 연예인을 초청, 피서객들을 위한 '2007 명사십리 섬머 페스티벌'과 즉석 장기자랑·댄스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광주 무등산 중심사·원효사 계곡과 패밀랜드, 화순 금호리조트 아쿠아나, 나주 중흥 골프장과 등지에 4만여 명의 물놀이객이 찾아 더위를 식혔다. 롯데마트·이마트·삼성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과 극장, 서점에도 더위를 피해 나선 '실속형'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광주·전남 주요 도로 곳곳은 오후부터 피서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의 지체와 서행이 반복되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8월 상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으며,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7월의 마지막 휴일인 29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만여 명의 피서객들로 크게 북적었다. /완도=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다량 검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고무 분말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S·J·K고, S초교, S학교 등 5개 학교의 인조잔디 내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성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S고와 K고 등 2개 학교에서 일부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지난 2005년 6월 완공된 S고 인조잔디 고무 분말의 경우 PAHs가 kg당 139mg이 검출돼 기준치(10mg/kg)를 14배 가까이 초과했다.

지난해 말 완공된 K고 인조잔디에서도 벤조안트라센·크리센·벤조플루오안트라센이 각각 6.5, 6.0, 4.2mg/kg

검출돼 총량이 16.7mg/kg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중금속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납(Pb)이 kg당 60mg 안팎으로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90mg/kg)를 밑돌았다. /향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PAHs(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지는 방향족 화합물. 벤조피렌과 벤조안트라센, 크리센, 벤조플루오안트라센 등 독성을 지닌 물질이 많고 일부 발암물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적성(姓)이 표기 두음법칙 예외 인정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며, 과거부터 본래 음가음역소통강대로 표기해 온 경우에만 인정된다

李 林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이리 임리류 유류 유류류 류리류 리리류 나리려 리리려 노리류 료리류

연필뉴스가래

성씨 '柳·李'→'류·리'로 쓸 수 있다

대법, 두음법칙 예외 인정

그동안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 등을 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상 표기와 실제 표기 일치=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李(리)·林(림)·柳(류)·劉(유)·陸(육)·梁(량)·羅(라)·呂(리)·廉(렴)·盧(로)·龍(룡)' 등이며, 국민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音價·소릿값)대로 발음하고 표기해 온 경우에 한해 호적상 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정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녀도 함께 정정해야=정정 신청은 당사자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같은 성을 쓰는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비속(자녀·손자 등)이면 할 수 있다. 직계 존·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나머지 모두를 위해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본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필뉴스

국세청 등 8월 공무원 채용 붐

8월을 앞두고 국세청 등 공무원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9급 공채 사상 단일 시험으로 가장 많은 세부직 1천 200명의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18세 이상 28세 이하면 지원 가능하며, 학력과 경력의 제한은 없다. 원서접수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오는 9월16일 서울·광주 등지에서 필기시험을 치른다.

국가정보원은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안보수사·보안방첩·전산·통신 분야의 7급 직위를 모집한다. 1981년 이후 출생자로, 전산 및 통신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졸자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도 다음달 1일부터 하반기 9급 직원 200명에 대한 선발에 나선다. /연필뉴스



'날아다니는 배' 위그선(WIG Craft)이 29일 경남 고성군 당항면에서 첫 선을 보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설계하고 (주)한국화이바가 제작을 맡은 6인승의 이 위그선은 길이 12.5m·폭 10.5m·높이 4m 크기. 날개 위에 엔진이 달려 있으며 수면 위에서 뜬 상태에서 최고 시속 120km로 달릴 수 있다. /연필뉴스

연이은 불볕 더위 7월 30일 (음 6월 17일) 전국날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24~32
전주	구름 많음	24~31
대구	구름 많음	25~31
부산	구름 많음	24~32
서울	구름 많음	24~32
인천	구름 많음	24~32
대전	구름 많음	24~32
충청	구름 많음	24~32
경상	구름 많음	24~32
제주	구름 많음	24~32
울릉도	구름 많음	23~32
독도	구름 많음	24~31
제주	구름 많음	24~32
제주	구름 많음	23~33
제주	구름 많음	23~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2:26 썰물 < 07:50
목포 밀물 < 14:16 썰물 < 19:44
여수 밀물 < 09:18 썰물 < 03:25
여수 밀물 < 21:54 썰물 < 15:17

▲해돋이 05:39 ▲해질 19:38 ▲달돋이 20:01 ▲달질 05:2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화)	8/1(수)	2(목)	3(금)	4(토)	5(일)
날씨						
최저/최고	24/32	25/32	24/32	24/33	25/33	25/32

로스쿨 수료 필요학점 96학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모델 개발

내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모델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령대 법대 교수)에 의뢰해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될 과목은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과목, 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법률정보조사·법문서 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 5개 세부과목으로 돼 있다. 수료필수 학점은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51학점 등 총 96학점이다. 이수가능 학점은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63학점 등 총 108학점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10월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1천 점 만점)으로 이중 교육과정의 비중이 가장 크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모델

구분	과목군	세부 과목
법정필수	실무기초과목(5)	법조윤리(1), 법률정보조사(1), 법문서작성(1), 모의재판(1), 실습과정(1) * 실습과정: 로어링(분야별), 플리니(분야별), 엑스틴(분야별) 등
	기본법학과목(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선택필수	기초법학과목(4)	법철학, 법사학, 법사학 등/ 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2)
	인접과목(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문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2)
전문법학과목	대학별 특성에 따라 기업법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	

※필수 안은 학점
※선택필수과목은 이수 강제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간주됨

불안하고 초조할때
역시! 82년을 이어온 송표우향청심인

직 품 명
송표우향청심인